

안마태 정음 자판 개발과 관련된 년대별 연혁

30 년대와 40 년대

개발자 안마태는 36 년도에 태어나서 42 년도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구의 신흥 주택가에서 살았다. 당시 그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고 일본 제국의 강점기여서 밖에서는 일본말을 사용했고 집에 들어와서만 우리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소학교에 들어가서는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일본 말만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래서 한글은 있는줄도 몰랐고 일본글인 *가다가나*와 *히라가나*를 배웠으며 한자인 *간지*도 배웠다. 우리 말과 글을 본격적으로 배운것은 45 년도 이후 부터였다.

48 년도에 중학교를 들어가서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불과 몇년 사이에 *가다가나*, *히라가나*, 한자(혹은 *간지*), 한글, 그리고 영어 *알파벳*을 배워야하는 혼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가지의 글씨를 어려서 배워두었기에 컴퓨터 시대의 문자 입력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50 년대

56 년도에서 59 년도 까지 3 년간의 군복무 중, 2 년반을 오산 비행장 안에 있었던 미 제 10 대공 포단 본부 에서 근무하면서, 낮에는 예하 부대의 전투장비 (주로 고사포) 현황 보고서를 영문 타자기로 작성하는 일과, 이 내용을 상급 부대인 8 군 사령부로 테레타이프 로 보내는 일을 맡아했으며, 밤에는 야간 대학인 메릴랜드 대학 극동 분교를 다녔다.

이 기간 동안 통신부대에서 매일 하달되는 암호 코드를 보고서의 첫줄에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암호 코드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같지 않으면 그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글로 전달되었다. 오늘날 컴퓨터 시대에서는 글자의 코드가 같지 않으면 서로 알아 볼 수 없는것과 같은 원리였다.

그 당시의 이 부대는 대공 고사포 부대로서, 나르는 비행기를 지상에서 포를 쏘아서 떨어뜨리기 위해 빠르게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사용해야만 했다. 적기의 고도, 적기의 나르는 속도, 바람의 흐르는 방향, 풍속, 기압 등 많은 정보를 이 컴퓨터에 입력하여서 포와 포탄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 쏘아야 했다. 이러한 고사포 부대에서 배운 지식이 본격적인 민간용 컴퓨터 시대가 오기도 전에 그 원리를 미리 알게되었다.

59 년도에 제대한 후에도 61 년도 까지 메릴랜드 대학 용산 캠퍼스에서 계속 공부를 하였기에 미국 대학생들의 학사 과정을 거의 모두 이수하였다. 이 때에 영어 타자 실력이 1 분당 65 단어여서 상당히 타자 속도가 빨랐다.

60 년대

군 복무 중에 성직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기 원했으나 6.25 전쟁 중에 인천에 있던 성공회 신학교가 미군의 폭격으로 없어졌기에 그 신학교를 직접 입학하여 훈련받지 못하고, 1960 년도에서 부터 1964 년도 까지 연세 대학교 신학대학을 다녔다.

이때에 오늘날 한글 입력 자판을 개발하는데에 중요한 네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1. 겨울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죽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서울 시청 옆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 지하실에 수용해서 밤에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며, 한글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이들은 신통하게도 한글을 가르친지 몇시간 안에 읽고 쓰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2. 연세 대학교 학교 신문사(염세춘추사)에 근무하는 동안 최현배 박사님의 한글 가로 풀어 쓰기 원고를 받으러 가서 한글의 구조에 대한 공부를 많이하게 되었다.
3. 신문 기사 교정을 위해서 출판사를 늘 갔었는데 교정한 활자를 문선공이 빨리 찾아다 주지 않는 경우, 직접 납활자를 훑어다가 글자를 갈아넣은 사실과, 영자 신문 Yonsei Annals 를 만드느라 라이노 타이프 기계를 직접 만진 경험을 했다.
4. 제 2 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였는데, 이때에 배운 한문의 중국어 발음과 주음부호(오늘날에는 대만 등지에서만 사용)를 익혔기에 지금의 중국어 입력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64 년도에서 66 년도 까지 뉴질랜드에 유학가서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방학때 마다 인쇄소에 가서 일을 하였는데, 이 때에 출판 기술을 많이 익히게 되었다. 이미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는 많이 하였기에(메릴랜드 대학에서의 문학사 과정과 연세대학에서의 신학사 과정), 당시 관심이 많았던 정신분석학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의과 대학의 학과목을 많이 선택했다. 정신병원 실습을 약 9 개월 동안 받게되었는데, 이 정신병원에서 dyslexia(다이렉시아-뇌의 이상으로 글을 읽는데 지장을 가진 환자)를 알게되어, 글을 읽는데에 눈 신경과 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됨. 다이렉시아 환자에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방법 중의 한가지로 타자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들은 말을 받아 치거나, 생각하는 내용을 타자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66 년도에 귀국해서 성직 안수를 받고, 신학교에서 영어와 회랍어를 가르치면서 언어의 공부를 더하게 됨으로 오늘날 문자 처리 분야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일 이외에 맡은 임무가 산업선교와 영등포 문래동에 노동자 중심의 개척 교회를 시작하는 일이었다. 영등포 산업 복리 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한 이 일로 노동자들을 위한 교양 강좌와 주일날 교인들을 위한 미사 집전이었는데, 이를 위한 많은 문서처리를 위해서 한글 타자기를 구입했다. 그런데 처음 구입한 타자기가 **김동훈**식 타자기였는데, 이것은 자음 2 별, 모음 2 별, 받침 1 별로 된 5 별식의 타자기였다. 이 타자기는 글씨는 이뻐지만 사용하기가 힘들고 속도가 느려서 그후 전문 타자수를 고용하여 사용하게하고, 이보다 글씨는 밍게 보였지만 속도가 빠른 **공병우**식(3 별식) 타자기를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이때에 한글 타자기의 속도도 빠르고 글자 모양도 이쁜 타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산업선교를 하는동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초교파적인 산업선교회를 조직 하였는데, 이 산업선교회의 일로 중앙 정보부원들의 간섭을 많이 받게되어 69 년에 두번째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 조국과는 등을 지고 망명 생활을 하게되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때에 **공병우**식 타자기를 이삿짐에 숨겨서 몰래 가지고 국외로 반출하는데 성공했다.

70 년대

69 년도 부터 75 년도에 로스엔젤스로 전근 가기 전까지는 시카고에서 장로교단에 속한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의 공부를 하게되었다.

이 기간 중에 두가지의 중요한 경험을하게 되었다.

1. 첫째는 한국으로의 선교 지망생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경험이었다. 이 때에 내가 사용하던 한글 타자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분은 신통하게도 한글 타자를 빨리 배웠다. 이 타자기는 공병우식 3벌 타지기였는데 자음이 오른쪽, 모음이 왼쪽에 놓여있어 왼쪽에 자음이 있고 오른쪽에 모음이 노이는 한글의 쓰는 원리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 그분은 이런 자리매김은 시각적인 혼선이 온다는 사실도 지적해주었다.
2. 둘째는 70년도에 석사 과정을 끝내고, 71년도에 박사과정을 들어가기 전, 1년간을 루즈벨트 대학에 가서 노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노동 조합을 전연 조직할 수 없는 시카고의 Donally & Sons Co.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받을 들여놓을 수 없는 이유를 연구하는 임무를 갖고 일을 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쇄 회사로서 잡지를 하루에 1백만권 이상 찍어낼 수 있는 시설을 가진 큰 회사였다. 이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약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회사의 노동 조합에 대한 내용도 연구하면서, 컴퓨터로 자동화된 현대적인 인쇄 기술을 체험 할 수 있었다. 컴퓨터로 문선, 편집, 조판, 인쇄, 제본에 이르기 까지 완전 자동화한 공장이어서, 많은것을 배울 수 있었다.

75년도에 미국 성공회 로스엔젤스 교구에서 날로 늘어나는 한국의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갑자기 로스엔젤레스로 전근을 하게 되었다. 로스엔젤스로 전근와서 즉시 한인 봉사회라는 사회사업 기관을 만들고 이민자들을 도우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생활 안내서 발간이었다. 이 사업은 초판 천권을 발행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앞을 다투어 가져가므로, 그다음 부터는 1만권씩 찍어내어여 했다. 광고료를 받아서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판매하는 악덕 업자들 까지 생겨나서 이의 경고문을 신문광고로 내기도 하였었다.

76년에는 자체 인쇄 시설을 갖추고 대량 인쇄를 해서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첫 기항지인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한항공이 배포도록 하였다. 이 안내서가 나가자 이민자들은 더 자세한 생활 안내 내용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77년부터는 이들에게 충분한 생활의 자료를 제공하느라, 월간 잡지 (New Life) 형식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이 때에 많은 한글 간행물을 만들었는데, 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한글 식자였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납활자를 사용하는 때여서 그 많은 납활자를 미국으로 싣고 올려니 경비도 문제였으나, 이를 처리하는 문선공을 구하는 문제가 더 컸다. 그래서 고안해 낸 방법이 일본에서 제작한 한글 식자기를 들여 오는 일이었다. 이 사진 식자기를 사용하게되어 무거운 납활자를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다음 부딪힌 문제가 느린 식자 속도였었다. 그래서 이 수동식 사진 식자기에다가 소형 컴퓨터를 연결해서 식자 속도를 올리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판에서의 문제가 생겼다. 그 당시의 한국 표준 자판(4벌식)으로 실험을 해보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공병우식(3벌식)으로 실험해보니 문제는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결국은 기성 자판을 모두 버리고, 영문 자판에다가 독자적으로 자모를 그려 넣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후 이를 개량하고 또 개량해서 백여번 이상의 실험을 거쳐 2003년에야 만족할만한 자판을 만들게 되었다.

79년도에 월남 피난민 미주 정착 사업을 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으나, 이들 가운데 일부 노인들이 한문을 알아서 한자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문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 나라 이 외에도 월남이 있음을 알게되었다.

80년대

자판 개발에서 가장 활발했던 때가 80년대였다. 82년부터 85년 사이에는 77년도에 세운 이민자들을 위한 한인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인 교회(St. Stephen's Episcopal Church in Hollywood, California)를 보좌 하면서, 한인 봉사회 일에 전념하던 때여서, 한글 자판의 실험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었을 때였다. 텍사스에서 한글 컴퓨터 입력기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었던 **웨인 정**이라는 젊은 컴퓨터 전문가와 매일 전화로 한글의 컴퓨터용 개발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미국 동부에 계셨던 **공병우** 박사님과 자주 만나고 많은 한글 자판에 대한 자료 교환을 했었다.

공병우 박사님이 개발한 한글 식자기의 프로그램과 글꼴을 사와서 봉사회의 영문 식자기에 넣어서 한글 식자용으로 사용하였고, 그분의 개발 제품 광고를 뉴라이프지에 무료로 광고해 드렸고, 그분의 글들을 많이 연재해 드렸다. 그분이 요청한 이북의 타자기와 컴퓨터의 자판을 구해 와서 드렸고, 그분은 이것을 남한의 자판 연구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북과의 연계는 한인 봉사회가 재미 동포들의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실시하였고, 미국의 대 이북 정책 변경을 주선하였기에 용의하게 사진을 찍어올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로 한글의 동시 입력기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본인이 고안한 3벌식 자판의 발표를 뉴라이프지 1985년 5월호에 발표하였다. 표준 2벌식 표준 자판과의 입력 속도 실험도 완료하였다. 그 결과로 한글 입력을 위한 자율신경의 훈련에 소모되는 시간이 약 3천시간이 소모되는것을 알게 되었고, 오자 없는 입력 속도가 한글 소리 글판(3벌식)으로는 분당 600타에서 머무르고, 표준 자판(4벌식과 2벌식)은 400타에서 머무르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실험은 모두 동시 입력기가 완성되기 전이여서 순차 입력에 의한 속도 실험이었다.

90년대

80년대 말에서 95년도까지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재미 동포들의 이산가족 문제를 도우느라 한글 개발에 전념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연 없었다. 하지만 90년대 초에는 미국 기독교 협회회의 코리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캠페인 디렉터 일과 그 후의 코리아 화해 협회회의 일로 서울과 평양을 자주 드나들게되어 남과 북의 화해에 앞장서게 되었고, 미국의 남과 북부 조국의 정책 변경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관심 분야인 양쪽의 IT 분야 발전과 한글의 컴퓨터 입력분야에 대한 변화를 직접 지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96년도에 한글 신문 웹 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중국 연변에서 우리 글 처리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린다기에 달려가 보았더니, 자판 분과 회의에서 비 과학적인 남북의 2벌식 자판으로 통일 자판을 만든다는 합의를 보고, 이들에게 그 동안 연구해온 3벌식 한글 자판의 우수함을 보여주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해에 중국 연변 대학의 **김숙자** 교수에게 의뢰해서 그동안 연구해온 자판과, 남부 조국의 2벌식 표준 자판과의 비교 연구를 의뢰했다. 결과는 2벌식 표준 자판에 비해서 자판 외우는 시간이 2배나 빠르고, 입력 속도는 초기 10시간 전에는 느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평균 57%나 빠르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실험은 그 이듬해 까지 **김숙자** 교수와 함께 자판 자리를 13번씩이나 바꾸어 가며 실행한 아주 과학적인 실험이었다.

99년도에는 연변 대학의 **김광** 선생에게 의뢰해서 DOS에 사용할 수 있는 동시 입력기를 만들었다.

2000년대

2000년도 이후 부터는 교회 일과 봉사회 일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한글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2000 년도에 카이스트 인공 지능 연구 센터를 맡아계신 **김진형** 교수께서 초청해 주어서 그곳에 자주가, 전산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도하고 한글 자판의 컴퓨터 입력분야 일을 도와 2003 년에 윈도우용 동시 입력 자판 개발을 완료했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3 벌식 자판 사용자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으며 이들의 제안을 많이 받아드려 자판의 자모 자리를 많이 바꾸었다. 이 기간 중에 공병우 3 벌식 사용자이신 충남 대학교의 **한상형** 교수님의 제안을 많이 받아드렸다. (<http://ai.kaist.ac.kr/ahnmatae> 의 자유 토론장과 자료실에 들어있는 “*세벌식 사용자들과의 대화*”를 열어보면 이들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2000 년도에 조선 사회 과학원 응용 언어 연구실에서 풀어치기 입력 속도에 대한 실험을 했으며 결과는 중국에서의 실험 결과와 거의 같았으며 최소한 1.5 배가 빠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00 년도 부터 미국의 유니코드 콘소시움 회원으로 가입하고 국제 문자 코드에 대한 공부를 하느라 부지런히 국제 회의를 참가하고 있다.

2002 년 10 월 8 일(한국은 10 월 9 일, 한글날) 미국 특허청으로 부터 **Ahnmatae Phonetic Hangu Keyboard** 특허(번호 6,462,678)를 받았다. 이때에 한국 특허청으로 부터는 “*통상인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자판*”이기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동보를 받았다. 그후 미국의 특허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여 그 이듬해에 특허(번호 0390361)를 받게 되었다

2002 년 11 월 이후 중국 광둥성 심천시에서 중국어 입력기 개발과 멤브레인 자판기 개발을 시작했다. 중국어 입력 자판 개발은 중국에서 태어난 교포 3 세인 **최학선**님과 함께 오랜 기간동아 연구와 개발을 했고 2004 년에 개발 완료하여 중국 특허청에 신청하여 2006 년에 특허(번호 200410048668.X)를 받았다.

한글과 중국어 입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시 입력용 멤브레인 자판을 개발하여 2004 년도 부터 2,000 개를 만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보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무료 보급은 2005 년에 중단하고 남아있던 800 여개의 동시입력용 자판을 중국으로 다시 가져와 중국과 이북에의 무료 보급을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2 벌식을 주장하는 산업 자원부의 표준국 자판 전문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동안 오래도록 연구해온 자판연구에 대한 좋지않은 평가를 하였기에 그러한 나라에서는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후 2004 년에 미국과 중국으로의 활동무대를 바꾸어서 중국 료녕성 동항시 교남 경제 개발구에 단둥 안마태 개산기 개발 회사를 세우고 중국에서의 안마태 소리글판의 연구와 보급 그리고 중국어 입력기 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에 안마태 연구소의 웹페이지 (<http://www.ahnmatae.org>)를 새로 만들고, 영어와 한글 그리고 중국어로 웹을 만들어 한글과 한글 자판 보급을 하기 시작했다.

2005 년에 중국어 입력기 안음 1.0 을 개발완료하여 여러가지 실험을 하였다. 이 **안음 1.0** 은 중국어판 실험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중국어 단어 13,885 자가 들어있다. 중국인 직원을 고용하여 입력 속도 훈련을 2006 년 부터 시작하였다.

2006 년에 **안음 2.0** 을 개발하였다. 이 **안음 2.0** 은 현대 중국어 사전 제 5 판에 들어있는 약 65,000 여 단어가 들어있으며 1 분당 약 400 자가 입력 가능 하다. 중국어 속기 기계 입력으로 1 분당 220 자가 입력 가능한데 비해 이러한 입력 속도는 대단한 성능을 입증하게 되었다.

2006 년 6 월 부터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건공 소학교 800 명의 학생들에게 안마태 소리글판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평양에도 자판을 보내서 소학생들을 상대로 타자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8월 29일자로 80년대에 연구해두었던 한손 한글 키페드를 대한민국에 특허 (특허 제 10-0626489) 등록을 완료하였다.

2006년 말에 중국 연길시에 또하나의 연구실을 마련 하였으며 이 연구실은 중국의 조선어 신신학회와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6년 11월 20일 북경에서 열린 중국 중문 신신학회에 처음으로 안음 1.0을 소개하여 대단한 호응을 받게되었다.

2007년 내에 안음 3.0이 개발완료되며 이 3.0판은 더많은 단어가 수록되고 입력과 동시에 소리가 나오도록 되어있어서 장님이나 외국인들도 중국어 입력이 쉬워질 것이며 중국의 많은 문맹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되었다. 또 한손 한글 키페드로 중국어 입력기 개발을 시작하며, 한글키보드에도 음성이 생성되도록 개발을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비가 확보되면 곧 영어 입력기와 일본어 입력기도 동시에 개발할 예정이다.

2007년 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체리 벨리에서